

예산편성 과정 주민참여 길 열렸다

군의회 '고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가결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례안이 통과돼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0일 제 216회 임시회를 열고 고성군이 제출한 '고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 고성군

이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제4조에는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

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관한 모든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은 누구나 고성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으며,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해 20일 이상 군보와 홈페이지, 분청 및 읍면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해야만 한다.

이번 조례에서는 군수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20명 이내의 위원

가운데 절반은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 희망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군수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보건소 10월4일부터 독감 접종

65세 이상 무료 ... 50~64세 7,300원

고성군보건소는 10월 4일부터 간성에 있는 보건소 분청과 각 읍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만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접종을 실시한다. 접종시간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다.

보건소는 또 10월 10일부터는 만 50세부터

64세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료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비는 7천300원이다.

접종시간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며,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문의 : 680-3959>

박승근 기자



지난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 제15기 2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내년엔 의정비 동결 풀릴까

고성군의회 '변경 필요' 의견 밝혀 ... 주민들 "소폭 인상 필요"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3년간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의정비를 동결해온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불가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의정비를 소폭 인상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성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기획감사실에 내년에는 의정비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군은 이달 중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동결이나 소폭 인상이나를 우선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정비 인상 문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인근 자치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26일 양구에서 열리는 강원도 시군의회회장협의회가 끝나봐야 의정비 인상여부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동결로 결정될 경우 활동을 접게 되지만, 인상으로 가닥이 잡히면 10월 들어 주민여론조사와 관련 규정을 토대로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다. 이어 11월에는 홈페이지 등에 공포하고, 12월에는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3년간 의정비를 동결한 만큼 이번에는 소폭이라도 인상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지만, 일각에서는 세계경제가 이상조짐을 보이고 지역경기도 아직 어려운 만큼 동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간성을 주민 이모씨(46세, 자영업)는 "저도 의정비 인상에 강력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지난 3년간 동결해온 만큼 이제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소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거진읍 주민 윤모씨(50세, 농업)는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의정비를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어려운 주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친 것이며, 설악권 4개 시군의 의정비는 속초 3,397만원, 고성 3,024만원, 양양 3,015만원, 인제 2,819만원이다. 이는 지난 2009년 결정된 것이며 3년간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

최광호 기자

통일염원 한마음견기대회 논의

민주평통 고성군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협의회장 윤금열)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2011년 3/4분기 통일연수 및 제15기 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평통의 기능과 역할 및 통일정세 등을 주제로 상지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김명숙 교수(정치학박사)의 강연이 있었다.

이어 통일외교 수렴에 대한 문안 작성 등 설문작성을 실

시했다.

아울러 자체안전 회의에서는 자문위원과 지역청소년,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평화통일염원 고성군민 한마음견기대회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통일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안보의식과 더불어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통일의지를 함양시키기 위한 청소년통일안보교육에 대해 논의했다.

박승근 기자

고성군 녹색생활 실천 붐 조성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그린리더 양성교육 ... 해상2리 등 4개마을

고성군은 녹색생활 실천 붐 조성을 위해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과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는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은 제29회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와 제13회 고성명태축제 등 각종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녹색생활 실천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면서 탄소

포인트제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감, 그린카드 사용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 자전거 타기 생활화 등을 홍보한다. 또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안내 및 신청서를 배부하며 참여를 유도한다.

그린리더 양성교육은 지난 22일부터 내달 20일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그린마을 젊은이들을 그린리더로 육성해 체계적인 녹색생활 실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해상2리, 자산리, 죽정2리, 아촌

리, 원암리 마을회관에서 기후변화개요, 녹색생활실천 및 그린스타트 운동의 이해 등의 강의와 질의응답순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녹색생활실천 붐 조성을 위해 주민이 모이는 각종 행사나 모임, 교육 때 캠페인을 전개하고, 탄소포인트 가입을 홍보해 군민 모두를 그린리더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